

시대별 예술가의 혼 담은 ‘남도 한국화 명작전’ 개막

9월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허백련부터 박행보까지 40명
먹·색·현대미술로 분류해 전시
남도 한국화 명작 40여점 선배
“지역 미술 문화에 대한 자긍심”

남도의 한국화는 국내 미술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붓질로 펼쳐낸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남도를 예향으로 조성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화 작가들을 만나 볼 수 있는남도 한국화 명작전이 지난 13일 개막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는 9월7일까지 선보이는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 전시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5, 6전시실에서 열린다. 허백련, 허건, 천경자, 안동숙 등 남도 한국화를 대표하는 작가 40명의 예술세계가 담긴 명작 40여점이 전시된다.



허백련 작 ‘금강산도’.

전시는남도 한국화의 진수를 감상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작가들은 남도 한국화 원로 작고 작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전통 남종화 작품,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작품, 현대미술을 적용해 재창조한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구분해 소개한다.

남도 한국화 대가들은 남종화, 채색화, 현대미술 등 한국화를 다양한 내용으로 그려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뜻을 계승하

는 차원에서 작품의 내용에 따라 3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첫 번째 주제는 순수하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담백함墨’이며 두 번째 주제는 감성적인 색을 넣어 기(氣)를 강조한 ‘아름다움色’이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화의 다양함을 뜻하는 ‘예술創’이다.

먼저 ‘담백墨’은 남종화에 천리(天理)를 담은 작품으로 순수성을 표현한 한국화 작품들이 걸렸다. 자연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담고자 한 작품으로 이성 절제된

마음, 깨끗함과 담백함 등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예술에 있어 순수하고 순정한 사유를 기본으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닦아 맑고 순수한 보편적 아름다움이 작품에 자리한다.

이어 ‘아름다움色’은 감성적인 색을 넣어 아름다움과 친근함을 나타낸 한국화 작품들로 구성됐다. 한국 미술사에 있어 채색화 전통으로, 감성적인 색을 넣어 기(氣)를 강조한 작품으로 대중적인 따뜻한

도 담겼다. 독창적인 화법과 함께 화려한 색채를 먹으로 버무렸다.

‘예술創’은 먹과 채색의 전통에 현대미술의 조형적 요소를 적용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남도 한국화의 먹, 채색의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통해 남도 한국화의 새로운 전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가르친 교수나 이들에게 한국화를 배운 작가들은 당대 현대미술을 수용해 한국화를 새롭게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계승하고 재창조했는지 알아볼 기회인 셈이다.

윤익광주시립미술관장은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남도 한국화를 통해 예술의 의미와 가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라며 “한국화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알리는 이번 전시로 시민들의 미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의 고장이라 불리는 남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우디의 감미로운 음색으로 전하는 ‘너에게 닿는 노래’

GAC 기획공연 포커스 무대
내달 20일 광주예술의전당

GAC 기획공연 포커스 세 번째 무대가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우디의 무대로 꾸며진다.

우디가 선보이는 ‘너에게 닿는 노래’가 다음달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기획공연 포커스는 예술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우디는 2011년 그룹 N-Train으

로 데뷔한 이후, 보컬과 랩은 물론 작곡, 프로듀싱 등 다방면의 역량을 겸비한 뮤지션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공연은 그의 대표곡인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say I love you’, ‘어제보다 슬픈 오늘’, ‘대충 입고 나와’ 등 감성적인 곡들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가능하다.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한 예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박찬 기자

세계 최정상 실내악단 무대 ACC서 본다

7월4일 예술극장 극장1
‘카메라타…’ 내한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5 ACC 슈퍼클래식’ 첫 번째 무대로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선보인다.

‘카메라타 로열 콘세르트헤바우’(CAMERATA RCO) 내한 공연이 7월4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카메라타 로열 콘세르트헤바우’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의 핵심 단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이다.

이들은 현악기와 관악기가 어우러진 소규모 오케스트라 구성으로 정교하고 풍부한 음악을 구현하며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는 영국 음악 전문지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세계 1위 오케스트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고전과 낭만을 아우르는



오는 7월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내한 공연을 선보이는 ‘카메라타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ACC재단 제공

전통 연주곡뿐만 아니라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연주하며 실내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갖는 중후함과 유려한 사운드, 실내악단의 섬세한 화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무대로 생생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오는 11월 내한 공연을 앞둔 ‘로

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미리 실내악으로 접할 기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연은 7월4일 오후 7시30분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이다. 관람권은 13일부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국립광주박물관서 새롭게 태어나는 도자전시

‘도자문화관’ 오는 12월 공개
아시아도자문화전시 확대 이전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12일 상설 전시실인 ‘아시아도자문화실’의 전시를 종료하고 새로 개편한 ‘도자문화관’을 오는 12월 공개한다.

13일 국립광주박물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는 핵심 목표에 따라 국내 최초로 도자기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브랜드 문화관 건립을 위해 추진됐다.

도자문화관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에는 3개의 상설전시실(한국도자·신안해저도자·디지털 아트존)과 도자기 전문 수장고, 2층에는

카페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한국도자실에서는 강진 고려청자,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등 6만여점에 이르는 한국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의 강점을 살려, 도자기의 제작과 유통, 소비 과정은 물론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통해 한국 도자기 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신안해저도자실에서는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원나라(元代, 1323년경) 무역선에 실려있었던 2만 4000여점의 다양한 도자기를 중심으로 14세기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찬 기자

↓‘디지털 아트존’ 내부.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천선란 SF 소설 ‘천 개의 파랑’, 할리우드서 영화화

위너브라더스와 계약·각본 개발
30~31일 동명 뮤지컬 ACC 무대

소설가 천선란의 장편 SF ‘천 개의 파랑(사진)’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이 결정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아시아출판사의 문학 브랜드 허블은 최근 “‘천 개의 파랑’이 위너브라더스 픽처스(Warner Bros. Pictures)와 영화화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스크린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너브라더스 픽처스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제작사로 ‘해리 포터’, ‘듄’ 시리즈 등 인기 영화를 제작해 온 글로벌 스튜디오다. 구체적인 판권 계약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화화 대가로 6~7억원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블은 “위너브라더스 픽처스가 ‘천 개



의 파랑’을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셀린 송, 그레타 거윅, 알폰소 쿠아론 등 감독과 각본 개발을 계획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출간된 ‘천 개의 파랑’은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인간형 로봇이 보편화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로봇 가수 ‘콜리’와 연골이 닳아 안락사를 앞둔 말 ‘투데이’의 이야기다.

천선란 작가는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SF작가로 그의 소설은 영화사 판권 체결은 물론 연극, 뮤지컬 무대 등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천 개의 파랑’ 원작을 뮤지컬로 각색한 동명의 작품이 오는 30~3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연을 펼치는 서울예술단은 내년 상반기 ACC 이전이 결정돼 이들의 역할을 확인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찬 기자